**자 기 부 인 /존 웨슬리**

 ****

 † <자 기 부 인 /존 웨슬리>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눅0923.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니라, 만일 누가 나를 좇아 올 것이면,

그로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그의 십자가를 매일 들게 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게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훈은 사도들이나 적어도 초대교회의 신도들,

또는 박해를 받는 사람들과 연관된 것이라고 흔히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예외나 제한없이 우리들과 그리고 전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의 '어떤 인간'이든지, 즉 어떤 계급이나, 신분이나, 처지의 사람이든지

충실하게 '나를 따르려 할 것 같으면' 모든 점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이며,

어떤 종류의 십자가든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남아 있게 되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이고도 필수불가결한 성격의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나 자기의 육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추종하거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고

주님께 등을 돌리거나 주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동의 유일한 법칙이 됩니다,

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즉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께 곧바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한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가던 인간의 뜻은

지금은 다른 길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 뜻과 전혀 반대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 가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 두 길을 다 걸을 수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여 자기를 따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뜻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고, 동시에 우리들에게 기쁨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지 해야합니다.

우리의 길은 쾌락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또한 죽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뜻을 부인하는 것 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할 뿐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보다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달리다 보면

흔히 우리의 달리는 길에 십자가가 가로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든지

하나님의 길, 즉 '우리에게 내리신 거룩한 명령'을 외면하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악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오른편 눈을 뽑아 버리고 오른 손을 자를 필요가 흔히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리석은 욕망과 과도한 애정에서 떠나는 일,

또는 그 욕망과 애정의 대상으로부터 떠나는 일인데

전자의 경우, 이것이 영혼에 깊이 뿌리박혔을 때 이런 욕망과 애정을 떼어버린다는 것은

예리한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과 같고,

 '영과 육, 뼈마디와 골수'를 갈라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는 인간의 불순물을 태우시는 연단하는 불꽃으로서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잡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며 그 일의 성격상,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영혼은 두 동강이로 찢겨질 수 없으며, 고통 없이는 연단의 불길 속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후자의 경우, 그 일의 성격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질병의 성격 때문에 흔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무엇이나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그의 욕심과 탐심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임을 잘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자체만도 그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슬픈 표정으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지상의 소유를 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버리는 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듣기를 원치 않았던 짐이었고, 그가 지지 않으려고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Ⅵ.'십자가를 지는' 일은 '십자가를 견디는' 일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온순하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참을 때,

 그 때는 적절하게 (소극적으로) '**십자가를 견딘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을 자진하여 감수할 때,

자신의 뜻에 상반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게 될 때,

 또한 현명하고 은혜로우신 창조주의 뜻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을 선택할 때,

 우리가 적절하게 말해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는**'것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으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도공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놓여지게 된다면,

 그것의 질과 양과, 정도와, 지속성과 그리고 다른 모든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복지를 위해 지시하시고 명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은혜로운 주님께서

'단지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분의 거룩함에 동참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치료하시는 의사로서 행동하신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분이 우리의 상처를 찾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고통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오직 상처를 고치시기 위해서 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곪고 부패한 부분을 잘라 버리십니다.

우리의 온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기 보다는 차라리 오른 손 하나를 자르기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에 상반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는 것이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필요할 때에는 잠시 동안의 고통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거나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혐오하시는 죄를 알고 있지만,

그의 가슴 속에 품은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정욕과 불결한 욕망으로 가득찬 채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는 그러한 욕망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깊은 감명이 그의 마음 속에 일어날 수 없으며, 그의 우매한 마음은 아직도 완악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무감각과 무의식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약간 뜨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빨리 눈을 다시 감습니까?

왜 죽음의 잠에 다시 빠져들어 갑니까?

그가 다시 마음 속에 있는 죄악에 굴복하고 달콤한 독을 다시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속적인 감명이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치명적인 무감각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경우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깨어났을 때 다시는 졸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단 받아들인 감명은 사라지지 않고 깊게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구하는 바를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애통을 하고 있지만 위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이고,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쉽게 둘러 싸고 있는 죄, 즉 어떤 체질 상의 죄, 직업과 관련된 죄에서 떠나지 않고

또한 그들이 행할 수 있고 마땅히 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늘의 은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는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었습니다.

그에게 주셨던 성령으로 말미암아'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사람과 같이 나약합니다.

그는 다시 세상의 일을 좋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욱 맛보려고 합니다.

마침내 그의 이해의 눈은 닫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의 사랑은 완전히 냉담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은 이제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다시 악마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면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어리석고, 쾌락적인 죄에 다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교만, 분노와 욕망, 아집과 완고함에 빠져 버렸습니다.

또한 자기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사를 불러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태만에 굴복해 '항상 기도하며 모든 인내로서 조심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파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는 믿음의 파선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의 영혼과 더불어 끊임없이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이 어느 정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과 같이 의에 굶주려 하지도 목말라 하지도 않고,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과 충만하신 기쁨을 갈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지치고 연약하게 되어, 사실상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약0222. 믿음이 그의 행함들과 함께 작동했던 것과 또 행함들에 의해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던

경위(사정)를 네가 아느냐?

약0223.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 또 그것이 그에게 '법적 깨끗함'으로

전가되었느니라(돌려졌느니라)"고 말하는 성구(聖句)가 성취되었느니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벗으로 불려졌느니라.

약0224. 그렇다면 사람이 행함에 의해 적법하다고 여겨지며,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이 아닌 사정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데 있어서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말씀을 숙고하지도 않고, 금식하지도 않고, 종교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가 이런 일들을 전적으로 등한히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이 일을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경건의 행위는 물론 자선의 행위에도 열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충분한 재질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와, 모든 정도로서 사람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해 선을

행함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메마른 시절의 기도는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기회를 통해, 계속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잠이 달콤하거나 삶이 차겁고, 어둡고, 구질맞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자비의 행위를 계속을 못합니까?

옷의 경비를 절약하고 값싸고 맛없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병든 자와 감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쾌한 경우가 따르는 것입니다.

대개의 영적인 자비의 행위는 그런 것입니다.

즉 견책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이웃을 견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수치심, 때로는 공포가 끼어듭니다.

왜냐하면 조소를 받을 뿐 아니라, 더욱 큰 불편함에 자신을 노출시킬런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편함과 그와 비슷한 생각에서 그는,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비와 경건의 행위를

부분적으로 태만히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완전하게 될 수 없고 그는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즉 그가 '자기를 부인하거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 부인 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의 결핍에 항상 기인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나팔소리가 들려와도 죄 가운데 죽은 자가 깨어나지 못하는 것,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자가 깊고 영속적인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죄에 대해 깊고 영속적인 확신을 가진 자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

하늘의 은사를 받았던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지속하지 못하고 신앙이 파선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멸망의 포구로 가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지치고 연약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급의 표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신비주의 작가들이 자기 부인을 가르친다'고 악한 인간은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영감받은 작가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꺼이 들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자기 부인의 교훈을 반대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다소의 찬성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해지려면

자주 그리고 주로 이것에 대해 말해야 됩니다.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그 필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이것을 강조해야 되고

 '한 줄 한 줄, 한 교훈 한 교훈' 강조해 가면서 여기에 대해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는 거리낌없는 양심을 갖게 될 것이며,

자기 자신의 영혼과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당신들 각자 자신의 영혼에 이 교훈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이 골방 속에 거할 때 이것을 숙고하십시오.

마음속에서 그것을 음미하십시오.

이것을 철저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도록 유의하십시오.

깨닫자마자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얻기 위해 능력 많으신 분에게 부르짖으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이 시간부터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생의 제반 환경에서 발생되는 수천가지의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이것을 보편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처음 일을 행한 시간부터 그리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견디므로

드디어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중단하는 일이 없이 그 일을 실천하십시오.